

관솔불과 原電



洪 三 善

〈韓電原子力建設部 代理〉

人類가 불을 발견한 이래, 이를 照明用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처음엔 관솔(松明)을 사용하였으며, 中國 周代에 이르러서는 麻幹(삼대)을 말려, 燕麥(귀리)의 겨를 기름이나 물에 짓이겨 적당히 건조시켜 만든 麻燭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밀초(蠟燭)는 樂浪時代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推測되며 오늘까지 쓰이고 있는 洋燭는 李朝末葉 西洋人의 손에 의하여 傳來되었다고 한다.

石油와 石油用 洋燈이 들어온 것도 우리나라가 오랜 鎖國의 벽을 깨고 門戶를 開放하기 시작한 1850년대 전후의 일인데 앞서 말한 麻燭을 함경북도 僻村에서는 8. 15解放 당시까지도 燈火用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깃불 구경을 하게 된 것은 1879년 에디슨이 白熱電燈을 발명한지 8년 뒤인 1887년 乾清宮에 點燈을 하여 九宮深處의 神秘境으로만 알려졌던 宮內 殿閣이 대낮같이 밝혀지고, 發電機가 蒸氣動力인 관계로 그 冷却用水가 熱湯이 되어 香遠亭 연못

에 還流되는 바람에 연못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자 豪華스런 電燈이 蒸魚를 만들었으며 蒸魚는 亡國의 징조라고까지 쭈근대는가 하면, 기계에 익숙치 못한 탓으로 故障이 잦아 제멋대로 켜졌다 꺼졌다 하여 전달불이라고까지 부르던 때부터이며 이런 電燈이 민간에 켜진 것은 1900년계의 일이다.

최초의 전기가 민간인들에게 供給될 무렵, 처음엔 16축 2천燈을 목표로 주로 日人村인 진고개, 지금의 충무로 일대에 가설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東, 西, 北村 사람들은 그저 기이한 눈으로 볼 뿐 별 흥미도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인 鐘路 中心街에 電氣會社가 서어비스로 켜놓은 3개의 屋外燈이 전부였다. 왜냐하면 수천석씩 하는 집안에서도 당시 電氣料금이 남포불보다 몇배나 더 비쌌기 때문에 감히 전기를 쓰지 못하고 다만 도둑을 막기 위해 長明燈을 外燈으로 처마끝에 달아서 밤길을 밝혔는데 그것도 가뭇에 콩나듯 하였다고 하니 해만지면 암흑천지라서 사방에도 개비가 우글우글 하였을성 싶다.

그러던 우리나라의 電氣事業이 1898년 1월 18日 創立된 漢城電氣會社로부터 시작되어 日帝時代를 거쳐 解放을 맞으며 조금씩 發展을 거듭해오다가 1948년 5월 14日 12時 정각에 당시 南韓電力需要量의 50~60%를 담당하여 오던 北韓이 電力供給을 中斷한 5. 14斷電으로 처음으로 電力飢饉을 겪어야만 했지만 戰亂으로 인한 폐허위에서도 電力事業은 계속 추진되어 60年代에 접어들면서 經濟開發計劃에 맞추어 借款事業으로 火力發電所가 建設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火電 後續機가 계속 建設되고 드디어 無制限 送電의 금자탑을 세우게 된 그 이전부터 原子力發電開發計劃案이 구체화 되었는데, 1962년 11월, 原子力院에 原子力發電 對策委員會가 구성되고 原子力發電開發計劃作業이 착수

되고 부터이다.

韓電이 原電建設 및 運營의 主體로 確定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原電인 古里 1號機를 Turnkey 方式으로 建設, 現在 稼動中에 있으며, 이어 古里 2號機, 月城 3號機를 거쳐 이제는 國內最初의 韓電主導型인 Non-Turnkey 方式으로 古里 5, 6號機를 建設하기에 이르렀으며 後續機인 7, 8, 9 및 10號機도 계속 Non-Turnkey 方式으로 建設中에 있어 관솔불에서 長明燈, 건달불을 거쳐 드디어 原電에 이르기까지 괄목할만한 경이적인 成長을 이룩하여 금년 夏季 電力 Peak值가 700만KW를 상회하여 原電時代의 到來를 豫告하고 있는 것 같다.

연전, 늦가을 마른 잎들이 스산하게 거리위에서 비에 젖은 채 이리저리 흩어져 날리던 가을날, 훌쩍 바다 건너 처음으로 낫선 美國땅에 내려 달리는 차창가로 바라보이는 것중 映畫「자이언트」에서 나오는 것같이 생긴 거대한 메뚜기 모양의 無人石油採取 펌프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낚시를 좋아하는터라 하루는 롱 비치에서 바다 가운데로 나가는 낚시배를 타고 돌돔 낚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양 친구들과 합쳐 여기저기서 모인 약 50여명의 낚시꾼들끼리 2불씩 내기 돈을 걸어 제일 큰 돌돔을 낚은 사람이 건돈을 다 먹기로 하는 게임이 있어 나도 20여년에 가까운 낚시 실력을 보여주리라 싶어 빠지지 않았다. 삼치서부터 조기, 고등어 할 것 없이 아직 오염되지 않은 바다에선 낚기가 바쁘게 입질이 오고, 릴이 부러질 듯이 감겨 올라왔다.

그러나 大魚賞으론 돌돔을 제일 큰 놈으로 낚아야만 내기 돈을 다 먹게 되어 있어 열심히 노리고 있는데 눈에 들어 오는 거대한 군함같은 게 있어 보니 이것 역시 바다 가운데 설치해놓은 石油試錐船이었다.

또 한번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

이에 둔탁한 입질이 왔다. 50m도 더되는 水深에서 올라오는 고기를 잡는데는 꽤나 時間이 걸려야 했다. 늘 그렇듯이 낚시배는 고기가 물기만 하면 릴을 감으라고 방송을 하곤 금새 옮겨가기 때문에 잠깐 한눈 팔다보면 포인트를 잡을 여유도 없다. 이것도 미국인 낚시배의 장사 속인줄 뒤에야 알았지만 채 릴을 다 감지도 못한 릴대 끝엔 아직 퍼석거리는 벌건 돌돔이 달리는 배의 속도에 밀리면서 저만큼 부서지는 파도속에 팔려 오다가 급기야 빨라지는 물살에 핑하고 터져나가자 우체부같은 펠리칸새가 언감생심 쪼으려 달려 들었다. 정말 농친 고기는 지금도 기억속에서 점점 커가고 있지만, 내기 돈 100불도 눈앞에서 사라져갔다. 끌어 올리기만 했어도 틀림없이 1등을 하고도 남을 큰 놈이었다.

石油試錐船 구경하느라 한 눈 파는 새에 벌어진 일이어서 일행 중 한 친구에게 얘길했더니 너희 나라엔 저런게 없느냐고 의아한듯이 물었을 때 나의 대답은 힘없는 그것이었다.

그후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부근의 「팔로버디」라는 原子力發電所 建設現場에 5개월 남짓 있었는데 1基당 1백27만KW, 3基를 사막 한 가운데에 建設中인 project로 76年5월에 着工하여 83년부터 연차적으로 1基씩 竣工을 할 계획으로 한창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워낙 건조한 기후 탓으로 습도는 7~8%로 아주 쾌적하였고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熱氣도 낮은 습도 탓인지 견딜만은 했다.

그 술한 메뚜기를 두고 무엇 때문에 原子力發電所를 지어야 하는지, 그것도 「피닉스」로부터 한 시간 정도 Free Way를 달려야 하는 거리에 水路를 파서 冷却水를 끌어와야 했고 TMI 原電事故 이후 반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原子力發電所를 짓는다, 太陽熱 發電所를 짓는다 하는 저들의 電力事業에서 대답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았다.